

■ '국민행복기금' 이달말 출범

# 금융권·대부업 모든 빚 원금 50~70% 탕감

## 1억원 이하 6개월 이상 연체자... 최대 22조원 채권 정리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으로 제도권 금융은 물론 대부업체의 연체채권까지 채무조정 신청을 받아 일괄 매입·정리한다.

기존처럼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연체채권을 '처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금으로 여러 금융회사에 있는 채무조정 신청자의 빚을 '모집·조정'하는 개념이다. 가계부채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다중채무(여러 금융회사에 진 빚)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국민행복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민행복기금법은 기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채권의 종류와 매입 대상 금융기관을 지정한다. 채권의 종류는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1억원 이하 채권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난달 말이 기준 시점이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기업금융국장 은 "(6개월 전인) 지난해 8월 말부터 연체가 시작된, 즉 이자를 내지 못한 채권에 한정한다"며 "상환의지가 있고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연체채권 매입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카드·할부금융사, 저축은행, 상호

금융사, 보험사 등이다.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6개월 이상 연체채권과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사들인 상각채권(금융회사가 손실 처리한 채권)도 포함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조정이 결정되면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원금을 50~70% 탕감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맺는다.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은 채권 금융회사의 성격에 따라 과거 무수익채권(NPL·Non Performing Loan) 회수 경험률

에 비추 차등화한다.

은행에 8%, 카드·할부금융·저축은행에 6%, 대부업체 4%, 보험사 등 기타부문에 4%의 할인율 적용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1000만원짜리 연체채권을 은행에는 80만원, 대부업체에는 40만원 정도 주고 가져오는 것이다. 할인율은 해당 금융회사의 특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

금융회사에는 채권매각 대금을 즉시 모두 주거나, 절반은 즉시 주고 나머지는 채권회수 이후 주거나, 전액 채권회수 종료 이후 주는 3가지 방식을 놓고 조율 중이다.

기금 재원으로는 신용회복기금 잔액 8700억원을 먼저 활용한다. 이가

운데 현금 5천억원이다. 4~8%의 할인율로 따지면 최대 22조원의 연체채권을 정리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이 늘어 채권 수요가 많아지면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의 정부 배당액은 물론 은행 배당액도 줄어든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제정에 앞서 금융권과 협약을 맺고 이달 말 국민행복기금 출범식을 열 계획이다. 출범식에는 박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행복기금은 고금리 채무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은 경우 캠코의 '바퀴드림론'처럼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전환대출 사업'도 맡는다.

연행뉴스



김행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왼쪽)이 11일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부터 농지은행종합평가 우수상을 받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 농어촌공 '농지은행 평가' 우수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행윤)는 최근 '2012년 농지은행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본부로 선정됐다.

전남지역본부는 지난해 농지은행 7개 전사업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해 애초 예산 편성된 금액보다 140억원 가량을 초과 집행해, 농어업인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본부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또 무안신안지사는 사업간 타력적인 자금배정으로 공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시행, 전국 98개 지사 중 전국 1위 지사로 선정돼 능력을 입증했다.

전남본부는 지난해 농지·과원

규모화사업을 통해 쌀전업농과 과수전업농 1100여명에게 902ha를 임대지원해 농가당 평균 0.82ha의 경영규모를 확대해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100억원 가량 추가 집행한 것으로 공사 전체 목표 달성에 큰 기여하고 지역농업인에 큰 혜택을 제공해 우수본부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편 전남지역본부는 올해도 규모화사업 등 농지은행사업에 120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에 주요사업의 사업비를 70% 이상 집행해 농어업인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 광주·전남 1인당 가계대출 860만원

## 한은, 지역동향 분석... 이자부담만 58만원

지난해 말 기준 광주·전남지역 가계대출이 28조원을 넘어섰고 1인당 대출금 860만원, 1인당 이자액은 5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광주·전남지역 가계대출 동향과 특징'을 분석한 결과 2012년 말 현재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28조2000억원으로 2011년 말(26조 7000억원)보다 5.9% 증가했다.

금융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1조1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1조 6000억원)의 68.8%를 차지했다.

반면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2012년에 5000억원 증가해 2011년(1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많이

감소했다.

금융기관별 가계대출 잔액은 비은행 금융기관이 15조1000억원(53.5%)으로 예금은행 13조1000억원(46.5%)을 웃돌았다.

2012년 광주·전남지역의 주택대출은 1조2000억원 증가해 총 가계대출 증가액(1조6000억원)의 75.0%를 차지했다.

2012년 중 주택대출 증가율은 8.2%로 전년(17.0%)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전국(3.0%)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가계대출에서 주택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4.8%로 전년(53.6%)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주택대출의 증가세가 높았던 이유가 2010년 하반기

이후 광주·전남 지역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전체 가계대출 규모는 부산·경남(84조원), 대구·경북(44조 2000억원), 대전·충남(41조1000억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전남의 가계대출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로 경제활동 비중(지역내총생산(GRDP) 기준 7.2%)보다 낮은 수준이며, GRDP와 비교한 가계대출 비율은 31.6%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 규모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가계대출 규모가 작았다.

특히 1인당 가계대출 규모는 860만원으로 전국 평균(1306만원)의 65% 수준이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신보, 중소기업 1500곳 경영진단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에 경영진단과 보증지원을 함께 지원하는 '중소기업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난해 600개에서 올해 1500개 기업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상시종업원이 5명 이상인 중소기업이 신보 영업점에 신청하면 전문 컨설

턴트가 무료 경영진단을 해주고 진단보고서를 발급한다. 기업은 보고서 내용에 따라 신보로부터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홈페이지(www.kodit.co.kr)를 참조해 신보 기업지원부(02-710-4653)나 영업점(1588-6565)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행뉴스



광주 지역 자영업자들이 11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현대카드사 앞에서 신용카드사의 불공정 카드수수료 인상 철회를 촉구하며 카드결제기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자영업연대준비위원회 제공)

# “불공정 카드수수료 인상 철회하라”

## 광주 자영업연대 성명

광주 지역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사의 불공정 카드수수료 인상 철회를 촉구하며 단체 행동을 나섰다.

광주 지역 유통업자들로 구성된 자영업연대준비위원회(위원장 정현오)는 11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현대카드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소기업에 대해 대형할인점과 차별적인 카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

는 제도를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자영업연대는 “대형마트의 수수료율은 기존 1.5%에서 1.7%로 소폭 상승한 반면 지역 중소기업의 수수료율은 전년 대비 최고 50%가 상승했다”며 “이는 일반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의 영업이익 감소분을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전가하려는 부당한 처사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현재 지역 중소기업들은 카드 수수료를 인상으로 인한 매

장운영비용 증가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대형마트 수수료는 낮게 책정하고 지역 중소기업은 50%까지 인상한 것은 신용카드사가 대형마트를 도우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카드사들이 수수료율을 인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 해지를 비롯한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카드 이용액 증가율 '뚝'

## 45개월만에 최저

경기 불황 장기화로 카드 이용액 증가율이 45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1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 카드 승인실적은 43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3%(2조 6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2009년 3월 6.2% 증가 이후 가장 낮다. 취업자 수 증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 등 명목 이용액이 늘었으나 최근 소비 부진이 크게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형 할인점의 카드 이용액은 영업규제 강화로 전년 동월보다 13.2%, 전월보다 13.7%나 감소했다. 주유소도 휘발유 가격 하락과 폭설 등 여과

로 전년 동월 대비 3.1%, 전월 대비 10.8% 줄었다. 질병관리본부의 독감 유행 주의보 발령으로 의료기관 카드 이용액은 전월보다 8.8% 증가했다.

카드 종류별 승인 실적은 신용카드가 36조2천억원으로 전체의 84%에 달했고 체크카드가 6조8000억원으로 15.7%였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평균 결제금액은 6만3967원과 2만993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6.3%와 1.7% 증가했다. 주유소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연행뉴스

탈북미녀와 감동베라이어티 쇼!

함께하는

# 이것이 만나려 갑니다

CHANNEL A 매주 일요일 밤 11시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스카이라이프 13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장흥 16	IPTV 18

**CHANNEL A** www.ichannelA.com **채널A**